

# 무주, 민선 7기 출범 1주년 행사

### 공직자들 희망비전 공유... 인구문제 해결, 경제·관광부흥 목표 주목

무주군은 지난 28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공무원 2백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출범 1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나온 1년을 돌아보고 "무주다운 무주" 실현을 현실화하기 위한 각오를 다진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총흔담 참배를 시작으로 기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인홍 군수는 "그간 무주군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함께 땀 흘리면서 열심히 뛰어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묵묵한 응원을 보내주셨던 주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약속했던 무주발전을 일궈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내디뎠던 희망의 걸음이 예산 4천억 시대를 열었고 1백억 원에 달하는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조성과 열린 군수실을 통한 소통, 무주상품권 발행을 가능케 했다"라며

"이제부터는 우리가 일으켰던 슬한 가능성들에 거름을 주고 꽃을 피워 열매로 거두는 노력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구문제해결과 △침체된 경기극복, △관광산업의 부활,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무주군의 대체작목 육성에 공을 들일 것이라며 지역과 군민을 위해 날카롭게 보고, 부지런히 뛰며 따뜻하게 보듬고 가겠다라고 말했다.

△인구문제해결을 위해 귀농귀촌, 교육, 출산장려 등 기존의 좋은 정책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줄 것과 △침체된 경기극복을 위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무주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해 나가는데도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또 구천동 옛 명성의 회복, 태권도원 활성화, 적상산성 복원을 통해 무주관광활성화를 주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다방면에서 소통을 조여 오는 기후변화를 간파해서는 안

된다"라며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의 작목을 찾고 재배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마을공동체발전시스템 구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농산물 수매(매취)지원, 차액지원, 최저생산비 지원사업과 함께 창출해낼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한편, 공무원들에게 '원 팀'을 강조한 황 군수는 "리더는 리더답게 잘 이끌어 주고 후배는 후배답게 열심히 배우고 익혀 달라"며 "무주다운 무주의 모습도, 행복한 군민의 삶도 모두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를 마친 후에는 황인홍 군수와 무주군 간부 공무원들은 무주군 보건 의료원을 찾아 내원 환자들을 위로하고 치매환자 가족포로그램에도 참여했다. 또 치매안심센터 지역강사와 가족들을 만나 애로사항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 체재형 가족실습농장·게스트하우스 조성 전력

### 장수 귀농귀촌 정책설명회

장수군은 군내 귀농귀촌인,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수군 귀농귀촌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2019년도 귀농귀촌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장수읍을 시작으로 8월 7일까지 읍면동을 순회하며 귀농귀촌인과 귀향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귀농귀촌 정책 설명회를 열고 각종 귀농귀촌 정책을 소개한다.

장수읍 설명회는 1부 장수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이수재회장의 센터소개 및 센터의 각종사업 추진 현황과 2부 장수군청 일자리경제과 이길재 과장의 장수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및 농업정책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는 귀농귀촌 정책을 공유하고 농업정책 분야를 함께 소개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장수군은 번암면(7월 3일), 산서면(7월 11일), 천천면(7월 17일), 계북면(7월 24일), 장계면(7월 31일), 계북면(8월 7일) 등 각 면에서 귀농귀촌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과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등에 20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귀농귀촌인 지원 정책에 전격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영식 씨(52·장수읍 노곡리)는 "이번 귀농귀촌관련 사업 설명으로 향후 사업 방향에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며 "추후에도 이번과 같은 설명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작

진안군의료원(원장 조백환)은 지난 28일부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3층 병동에 20병상 규모로 보호자가 필요 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없이 입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병원 내 전담 간호 인력이 24시간 환자를 직접 돌봄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제도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간병비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안군의료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

스 실시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전문 간호 인력을 통해 24시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사 8명과 간호조무사 4명, 보조인력 2명을 배치했으며 환자의 식사 보조, 욕창 방지, 기본 위생관리 등을 도울 예정이다.

조백환 원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통해 환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주군은 지난 28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2019년도 상반기 공무원 이임식을 가졌다.

# "여러분이 바로 무주군의 자랑"

### 상반기 이임식 개최

무주군은 지난 28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2019년도 상반기 공무원 이임식을 가졌다.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과 대상자와 가족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환경위생과 송승용 과장(지방환경 5급)을 비롯한 농업지원과 김창수 과장(지방농촌지도관), 기술연구과 김승택 과장(지방농촌지도관), 시설사업소 전병을 소장(지방보건 5급), 부남면 김인철 면장(지방농업 5급), 안성면 강광석 부면장(지방행정 6급) 등 대상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 꽃다발 증정, 기념촬영, 석별의 노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로연수자들은 "하루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날은 없었지만 아쉬

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며 "힘든 순간, 어려운 고비 때마다 무거운 짐을 나누면서 함께 걸어준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여러분은 우리 무주와 군민들, 그리고 동료들 모두에게 항상 단비같은 분들이었다"라며 "아직도 많이 배우고 여전히 의지할 게 많은 여러분을 보내 드려야 하는 게 아쉽지만 여러분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라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이 사회에서의 새 출발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오랜 세월 영예로운 공직생활을 내조해주신 가족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30년 세월 헌신한 노고에 감사"

### 장수군청 상반기 공무원 공로연수 이·퇴임식

장수군은 지난 28일 군민회관에서 2019년 상반기 공무원 공로연수 이·퇴임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이·퇴임식은 서정원,신영식,박현식,김철현,김혜숙,정미자,신동신,양영수 등 총11명의 이·퇴임자와 가족,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패 수여, 이임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돼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박현식 기초조정실장은 이·퇴임자 대표로 이임사에서 "공직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격려

와 도움을 준 선·후배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공직기간 쌓은 경험을 살려 지역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장영수 군수는 축사를 통해 "30년의 세월을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건설을 위해 헌신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장수군 발전을 위해 군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지역 매아리

### 진안, 논 타작물 재배 목표치 153% 달성

진안군은 논 타작물 재배사업 접수 집계 결과 614농가 204ha를 신청해 목표면적인 133ha 대비 153%를 달성하며 전국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군은 올해 목표면적 달성을 위해 수차례 농가교육과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집중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벼를 재배한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공급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 작물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단가는 1ha 조사료 430만원, 일반작물·꽃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 휴경 280만원이다.

군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정보를 전산입력하고 검토·보완작업 중이다. 최종 논 타작물 재배 신청 결과는 7월초 확정된다. 올해 모내기 이후부터 10월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 점검을 통해 지급 면적이 확정되면 11월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안군은 전년보다 산지 쌀값이 좋아지고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타작물 전환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년도 신청 실적과 비슷하게 접수되어 선전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쌀 1,100여 톤의 생산량 조정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도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적극 참여해준 농가에 감사드리며 재배기술 교육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 장수아카데미 강원국 교수 글쓰기 특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대통령의 글쓰기'의 저자 강원국 교수의 특강이 장수군에서 열린다.

장수군에 따르면 7월 5일 오후 3시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전 군민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무료로 '대통령의 글쓰기'의 저자 강원국 교수를 초청해 장수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누구나 쓸 수 있는 12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을 담당했던 강 교수의 특별한 경험과 노하우가 전달된다.

강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대우그룹 회장 비서실, 김대중 전 대통령 공보수석실 연설행정관,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비서관 등을 지냈으며 '대통령의 글쓰기'와 '강원국의 글쓰기' 등의 저서를 출간했다.

장영수 군수는 "SNS 등으로 모든 사람에게 글쓰기 능력이 필요해진 시대에 이번 강연을 통해 글쓰기 방법을 터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